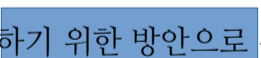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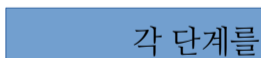


언어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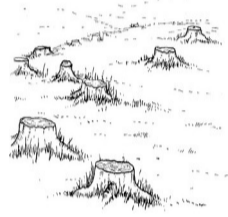
정답입니다.



각 단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언어영역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숲에서 나무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2 년 통계청 자료]

제목 : 교통 문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I. 서론 :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II. 본론

1. 교통 사고의 주된 원인

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 불감증

나. 관계 당국의 안이한 교통 정책

2. 교통 사고 피해 감소 대책

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의식 개혁

나. 실질적인 교통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

III. 결론 : 건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

<자료 1>

<자료 2>

언어영역

3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박두진, 해 -

- 이육사, 광야 -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언어영역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의 대기는 열을 흡수함으로써 지상의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태양은 지구를 따뜻하게 할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지구는 태양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반사하여 되돌려 보낸다. 그런데 대기를 이루고 있는 성분 중에서 수증기나 □ 이산화탄소 같은 성분은 지구가 우주로 복사하는 열의 일부를 지표면으로 되돌린다. 마치 열을 가두어 농작물을 한파로부터 보호하는 온실(??)과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대기의 이러한 작용을 온실 효과라고 하고, 이런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성분을 □ 온실 기체라고 한다.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온도를 지구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온실 기체는 인위적으로 대량 배출될 수도 있다. 인류의 산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에 필요한 에너지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었다.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얻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그 농도가 산업 혁명이 시작될 무렵보다 30%나 늘어났다. 메탄이나 질소 산화물의 농도도 마찬가지로 높아졌다. 이러한 대기 성분의 변동은 대기의 열을 가두는 능력을 자연 상태보다 훨씬 높게 만들었다.

온실 기체의 과도한 증가는 대기의 온난화를 유발한다. 이미 지금의 지구 평균 온도는 1860 년에 비해 0.4~0.8□ 높다.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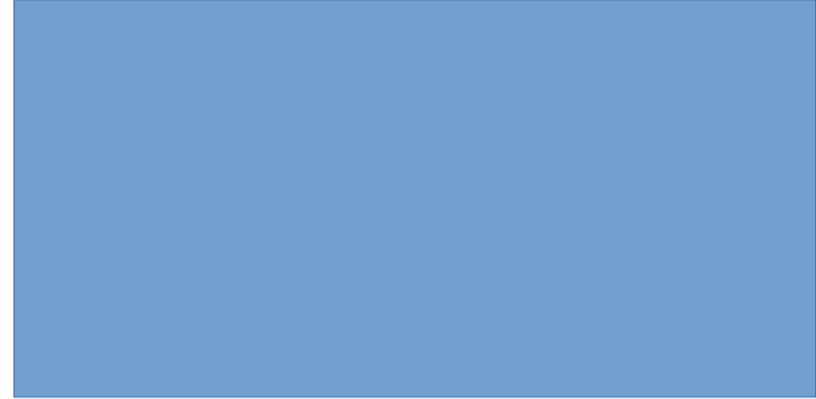
언어영역

5

추세로 산업 활동이 계속된다고 하면, 대표적인 온실 기체인 이산화탄소의 양은 22세기까지 현재보다 30~150%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지표 온도는 1~3.5℃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구의 온난화는 인간의 자연 환경에 어떤 변화를 불러 올 것인가? 우선, 극지방의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서 ① 바닷물의 양이 늘어나면, 해수면이 10~25cm 상승할 것이다. 그 결과 지구상의 많은 저지대, 예를 들어 태평양의 여러 섬들은 '물'으로서의 지위를 위협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기습적인 집중 호우 등의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훨씬 자주 일어나고 아프리카의 열대 지방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 지구에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자연 환경의 변화는 얼마든지 정치적·사회적 혼란과도 직결될 수 있다.

온난화로 인해 기후 체계가 손상되고 기상 재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온실 기체를 감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일종의 박애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국가 차원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 차원에서 인류 전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목표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안녕과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인간이 기후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보았고, 이 기후 변화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옳다고 믿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 자세가 필요하다.



언어영역

팔지 못하는 자가 수두룩하고 영결찬 인재가 하급 구실아치 속에 파묻혀서 끝내 그 포부를 펴지 못하는가? 정말 인재를 모두 얻기도 어렵거니와 모두 거두어 쓰기도 또한 어렵다.

대대로 명망 있는 집 자식이 아니면 좋은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고 바위 구멍과 띠풀 지붕 밑에 사는 선비는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억울하게도 등용되지 못한다.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고 비록 덕이 훌륭해도 과거를 보지 않으면 재상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동서고금에 첩이 낳은 아들의 재주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우리 나라만이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이나 두 번 시집 간 자의 자손을 벼슬길에 끼지 못하게 한다.

나라에서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할까 두려워해도 더러 나랏일이 제대로 될지 점칠 수

알맞은 자리에 등용되어 재능을 한껏 펼쳤다. 나라가 복을 받고 치적이 날로 융성케 된 것은 이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

없는데, 도리어 그 길을 스스로 막고서 "우리 나라에는 인재가 없다."고 탄식한다. 이것은 □남쪽 나라를 치러 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내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참으로 이웃 나라가 알까 두렵다.

뉴월에 서리를 내리는데 하물며 원망을 품은 사내와 원한에 찬 홀어미가 나라의 반을 차지하니 화평한 기운을 불러 오기는 어려우리라.

이 재상 때에 이런 공업(새?)이 없었을 것이요, 진관(?VII)과 반양귀(??◆)는 곧은 신하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사마양저(???□), 위청(??)과 같은 장수와 왕부(??)의 문장도 끝내 세상에서 쓰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재상 때에 이런 공업(새?)이 없었을 것이요, 진관(?VII)과 반양귀(??◆)는 곧은 신하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사마양저(???□), 위청(??)과 같은 장수와 왕부(??)의 문장도 끝내 세상에서 쓰이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을 거스르고도 하늘에 나라를 길이 유지하게 해 달라고 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하늘의 순리를 받들어 행하면 나라의 명맥을 훌륭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것은 본디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귀한 집 자식이라고 하여 풍부하게 주고 천한 집 자식이라 하여 인색하게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옛날의 어진 임금은 이런 것을 알고 인재를 더러 초야에서도 구하고 더러 항복한 오랑캐 장수 중에서도 뽑았으며 더러 도둑 중에서도 끌어올리고 더러 창고지기를 등용기도 했다. 이들은 다

언어영역

무질서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대칭에 이러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대칭에는 좌우 모습이 거울에 비치듯 똑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큰 균형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산만한 혼란으로 나타나는 무질서적 비대칭과 달리 그 나름대로 고도의 질서를 갖는 또 하나의 대칭이다. 한국 전통 건축에 나타나는 비대칭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비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궁궐은 정전 앞, 서원과 향교는 대성전 앞마당에 부분적으로 대칭 구도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 경우도 역시 전체의 배치를 놓고 보면 누군가가 일부러 건물들을 조금씩 옮겨 놓은 듯 주변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대칭 구도는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

임에도 불구하고 대칭 구도로 지어진 건축물은 얼마든지 있다. □서양의 베르사유 궁전이나 루브르 궁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궁궐같이 큰 규모의 건축물일지라도 대칭 구도로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전통 건축에 나타나는 비대칭 구도는 대칭 구도를 의도적으로 피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질서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건물을 대칭으로 짓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정형적 질서를 추구했던 서양 고전 건축의 경우 대칭 구도에 대한 선호는 강박 관념에 가까운 정도로 심하게 나타난다.

자연 지세(??)에 순응했기 때문이다. 구름이 흐르고 계곡이 파이며 때로는 물길이나 있는 자연 지세에 맞추다 보면, 대칭 구도는 자연스럽게 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자연을 인간의 선인 직선으로 정지(??)하고 재단함으로써 그 위에 인간만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던 서양 고전 건축의 자연관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 한국 전통 건축의 자연관에서 나온 현상이다. 이처럼 주변의 지세를 좇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건물을 배치하는 경향은 한국 전통 건축만이 지니는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왜냐 하면 평지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도 비대칭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 대칭이 허용되는 경우인데도 이처럼 비대칭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한국 전통 건축에서 비대칭이 대칭보다 더 선호되었음을 의미한다.

있다. 대칭이라는 정형적 질서에 반대하여 의도적으로 질서를 흐트러뜨리려는



언어영역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Blank lines for writing answers to questions 32-36.

물은 잔잔한데 향기 무성한 곳으로 시름없이 다니면서 백초(??)의 이슬을 싫도록 받아 먹고 산림 화초 간의 향기를 마음대로 내 몸에 쏘이며 무주공산(???)에 시비 없이 왕래하여 산과(?.?)를 마음대로 먹으며 분별없이 천봉 만학(????)에 때때로 왕 팔자가 기박하여 중년에 아내를 잃고 위안들만지 잃은 후 혼자 살 수 없어 지난 해 설달 새 아내를 맞았는데 그 용모가 뛰어나 서로 정이 가득하여 한 때로 떨어질 줄 모르고 살고 있다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바로 용궁에 가게 되면 집에 가서 말하고 갈 테니 여기 앉아 잠깐 기다리게나."

신하로 주부(??) 벼슬하는 자라로서, 수궁에 벼슬을 하다가 마침 동해 용왕이 수연(??) 잔치를 한다 하고 사신을 우리 궁중에 보내어 왕을 청하였는데, 우리 대왕이 우연히 오줌소태를 하여 성하지 아니하시어 못 가시게 되자 왕의 태자께서 날 보고 인간 세상에 나가 해변가로 다니며 어부들이 어디서 낚시질하는가 탐지하여 오라 하시기에 세상에 와서 탐지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곳에 화초가 만발한 것을 보고 잠깐 구경할 즈음에 선생을 만났으니 마음에 기쁨을 헤아릴 수 없네그려. 선생이 인간 세상의 경치를 자랑하는데 나도 용궁의 승경(?X)을 잠깐 자랑할 테니 자세히 들어 보게나."

색을 희롱하고 각색 풍류로 밤낮으로 연이어 즐기고, 칠보단장한 시녀들이 유리잔에 호박대를 받쳐 천일주를 권할 적에 그 흥(?)이 어떠하며, 아침에는 안개를 타고 저녁에는 구름을 잡아타고 온 세상을 잠깐 사이에 왕래하며 옥적(?)을 빗겨 불어 공중으로 마음대로 다니니 한 몸의 □말은 흥취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선생이 만일 요란한 세상의 녹녹한 풍경을 자랑하니 그 생각이 작네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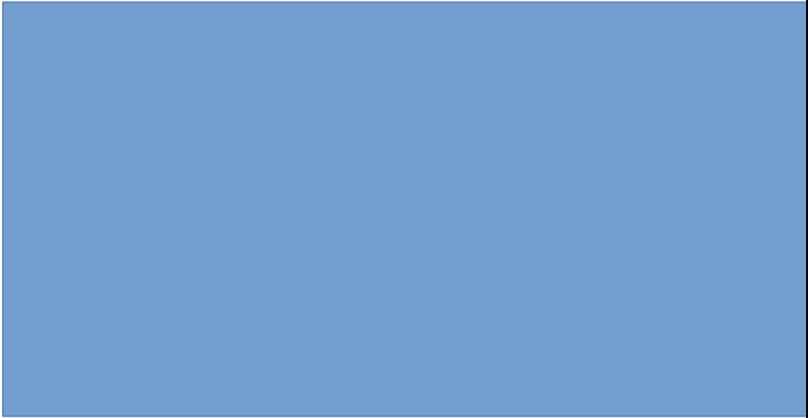
㉞ ㉟)을 어찌 면하겠는가? 겨울 삼 삭이 지난 후 골짜기에 봄 기운이 발양(??)할 때 돌구멍 찬 자리에 일어나서 시원한 데를 보려고 산 위로 바삐 갈 때 사냥 포수의 총이 머리 위로 넘어갈 때 일신 간장이 어떠하며, 평지로 내려가니 목동들은 새 낫을 어깨 위로 둘러메고 아우성 소리 지르며 에워싸고 들어올 때 □그대 없는 꼬리 살에 끼고 작은 눈을 부릅뜨고 짧은 발을 자주자주 노려 천방지방 자빠지며 엎어지며 달아날 때 가슴에 불이 나고 정신이 아득할 적에 어느 겨를에 화초를 구경하며 어느 코로 향기를 맡겠는가? 그대는 생각하여 나를 따라 용궁에 들어가면 선경도 구경하고 천도(??)라도 얻어먹고 미인을 희롱하여 평생을 환락할 것이요, 또한 부귀를 모두 갖출 것이니 재삼 생각하게나."

해 설달 새 아내를 맞았는데 그 용모가 뛰어나 서로 정이 가득하여 한 때로 떨어질 줄 모르고 살고 있다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바로 용궁에 가게 되면 집에 가서 말하고 갈 테니 여기 앉아 잠깐 기다리게나."

- 토끼전 -

언어영역

9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벼루로 문방 사우를 삼았나니 규중 여잔들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오. 이리므로 바느질 돕는 무리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벗을 삼을새, 바늘로 세요 각시라 하고, 자를 척 부인이라 하고, 가위로 교두 각시라 하고, 인두로 인화 부인이라 하고, 다리미로 울낭자라 하고, 실로 청홍흑백 각시라 하며, 골무로 감투 할미라 하여, 칠우를 삼아 규중 부인네 아침 소세*를 마치매 칠우가 일제히 모여 종시 하기를 함께 의논하여 각각 소임을 이루어 내는지라.

장단 광협(?끼 Z?)이며 수품 제도(???)*를 나 곧 아니면 어찌 이루리오. 이리므로 의지공(??씨)이 내 으뜸 되리라."



. 세누비 미누비 짧은 술 긴 옷을 이름이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어찌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이 재어 내고 교두 각시 베어 낸다 하나 나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 두 벗이 무슨 공이라 자랑하느뇨."

답의 입이 될지언정 소 뒤는 되지 말라 하였으니, 청홍 각시는 세요의 뒤를 따라다니며 무슨 말 하시느뇨. 실로 얼굴이 아깝구나. 나는 매양 세요의 귀에 찢리었으되 낮가죽이 두꺼워 견딜 만하고 아무 말도 아니 하노라."

- 규중칠우쟁론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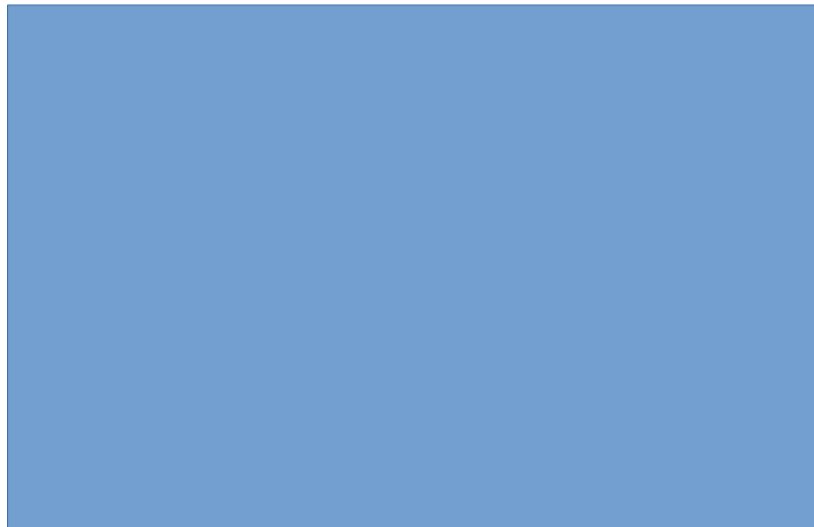
언어영역

장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다 지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콘서트 마스터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맡은 바 기능이 전체 효과에 종합적으로 기여된다는 것은 의의 깊은 일이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신뢰감이 거기에 있고, 칭찬이거나 혹평이거나, '내'가 아니요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의 파트가 연주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무음(??)의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에 있는 트리오 섹션에도, 둔한 콘트라베이스를 짚짚매게 하는 빠른 대목이 있다. 나는 이런 유머를 즐길 수 있는 베이스 연주자를 부러워한다.

- 피천득, 플루트 연주자 -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 런던의 공연장에서 열창하는 파바로티의 모습이나, 미국의 야구장에서 경기하는 박찬호의 멋진 모습을 한국의 안방에서 위성 중계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대중들은 언제라도 고급 문화나 대중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문화 예술이나 오락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의 발달이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셈이다.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의 융합 차원을 넘어 전 세계의 문화가 더욱 융합하고 혼재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위성 방송의 발전 및 방송 프로그램의 국제적 유통은 국가간, 종족간의 문화 차이를 좁히는 기능을 했다. ㉠이렇게 방송이 세계의 지구촌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족이 즐기는 대중 문화는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방송이 다룰 수 있는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이 끌어올렸고, 우리의 일상 생활 패턴까지 바꾸어 놓았다. 또한,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방송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광고 매체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방송이 지닌 이와 같은 성격은 문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 마셜 맥루한은 방송의 이러한 성격과 관련하여 "미디어는 곧 메시지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방송의 기술적, 산업적 기반이 방송의 내용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요즘의 대중 문화는 거의 매스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송의 기술적 측면이 방송의 내용적 측면, 즉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한 가지 예가 '스타 현상'이다. 오늘날의 사회적 우상으로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조던, 서태지 등은 방송이 만들어 낸 대중 스타들이다. 이러한 슈퍼

영국 런던의 공연장에서 열창하는 파바로티의 모습이나, 미국의 야구장에서 경기하는 박찬호의 멋진 모습을 한국의 안방에서 위성 중계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대중들은 언제라도 고급 문화나 대중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문화 예술이나 오락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의 발달이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셈이다.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의 융합 차원을 넘어 전 세계의 문화가 더욱 융합하고 혼재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위성 방송의 발전 및 방송 프로그램의 국제적 유통은 국가간, 종족간의 문화 차이를 좁히는 기능을 했다. ㉠이렇게 방송이 세계의 지구촌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족이 즐기는 대중 문화는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방송이 다룰 수 있는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이 끌어올렸고, 우리의 일상 생활 패턴까지 바꾸어 놓았다. 또한,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방송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광고 매체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방송이 지닌 이와 같은 성격은 문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 마셜 맥루한은 방송의 이러한 성격과 관련하여 "미디어는 곧 메시지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방송의 기술적, 산업적 기반이 방송의 내용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요즘의 대중 문화는 거의 매스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송의 기술적 측면이 방송의 내용적 측면, 즉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한 가지 예가 '스타 현상'이다. 오늘날의 사회적 우상으로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조던, 서태지 등은 방송이 만들어 낸 대중 스타들이다. 이러한 슈퍼

언어영역

11

스타들은 대중의 인기로 유지되는 문화 산업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 상품이다. 현대 사회에서 문화 산업 발전의 첨병(?)으로 방송이 만들어 낸 스타들은 로웬달이 말하는 '소비적 우상들'인 것이다. 이러한 대중 문화 우상들의 상품화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문화 산업 구조는 대중을 정치적 우중(?)으로 만들기도 한다.

양하면서도 차별화된 우리의 문화적 갈등을 풀어 주기도 하겠지만, 대중 문화의 상업주의, 소비주의, 향락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 또한 크다. 21 세기의 대중 문화가 보다 생산적이고 유익한 것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방송에 의한 폐해를 경계하는 한편, 방송 내용에 예술적 가치, 진실성, 지적 성찰 등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복 후 한참 뒤까지도 일본말은 일상 언어 생활에서

예사로 우리의 입에 오르내렸다. 일제 35년 동안에 뚫고 들어온 일본어를 한꺼번에 우리말로 바꾸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우리말 도로찾기 운동'이라든가 '국어 순화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지금은 특수 전문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본어의 찌꺼기가 많이 사라졌다.

그 동안은 우리 나라가 때로는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때로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정신적 문화 유산인 말과 글을 가꾸는 데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집안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신마저

혼몽(?)해지는 일이 있듯이, 우리말을 갈고 닦지 않으면 국민 정신이 해이해지고 나라의 힘이 약해진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통치하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선학(?)들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혼신의 정열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말을 가꾸는 길이란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일이 있다. 차례를

언어영역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첫째 마디, 둘째 마디'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여 꾸몄던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는 '평평하게 닦아 놓은 넓은 땅'을 뜻하는 '마당'에다 책의 내용을 가르다는 새로운 뜻을 준 것이다.

과 같이 낱말의 한 부분을 따 오는 방식보다는 역시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새로운 개념을 붙여넣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언어 대중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고장에서는 시멘트를 '돌가루'라고 불렀다. 이런 말들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훌륭한 우리 고유어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도 실리지 않고 그냥 페어(?)가 되어 버렸다. 지금은 고향에 가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고속도로의 옆길을 가리키는 말을 종전에 써 오던 용어인 '노견(鮑7)'에서 '갓길'로 바꾸어 언중이 널리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제 바른 방향을 잡아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㉞)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

- (㉟)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난다.
- (㉡) 어떤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

따르다¹ □ □ (㉟)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

- (㉡)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른다.
- (㉢)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좇다.

[51~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동차 속에서 이인국 박사는 들고 나온 석간을 펼쳤다. 일면의 제목을 대강 훑고 난 그는 신문을 뒤집어 꺾어 삼면으로 눈을 옮겼다.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
바둑돌 같은 굵은 활자의 제목. 왼편 전단을 차지한 외신 기사. 손바닥만한 사진까지 곁들여 있다.

그는 코허리에 내려온 안경을 올리면서 눈을 부릅떴다.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이차 왔다.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것은 자기의 억지에서였던 것만 같았다.

출신 계급, 성분, 어디 하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던 말인가.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 의과 대학에 입학된 바로 그 해다.

이인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하여

언어영역

13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다.

"애, 너 그 노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왜요?"

아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말에 의아를 느끼면서
아니 이젠 못하겠어. 하루에도 소식이 가서 제게도 무언중의 압력이 퍼져 갈

"야 원식이야, 별 수 없다. 왜정 때는 그래도 일본말이 출세를
하게 했고 이제는 노어가 또 판을 치지 않나.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 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아무튼 그 노서야 말 꾸준히 해라."

아들은 아버지 말에 새삼스러이 자극을 받는 것 같진
않았다.

"염려 마세요, 아버지……."

아들의 대답이 그에게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
이인국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텐코프 소좌의 배경으로 요직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짓고야
말았다.

또 재까지 그 '높이 드는' 복판에 휘몰아 넣으면 어쩔라구……"

"그래도 어디 앞일을 알겠소……."

봅시다."

아들의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라를 우격다짐으로
무마시키고 그는 아들의 유학을 관철하였다.

그는 만장의 기쁨을 토하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희망에 찬
미소를 풍겼다.
그 다음해에 사변이 터졌다.
잘 있노라는 서신이 계속하여 왔지만 동란 후 후퇴할
때까지 소식은 두절된 대로였다.
마누라의 죽음은 외아들을 사지로 보낸 것 같은 수심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신문 다치키리(스크랩) 속에 채워진 글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훑어 내려갔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에
연관되는 사연은 한마디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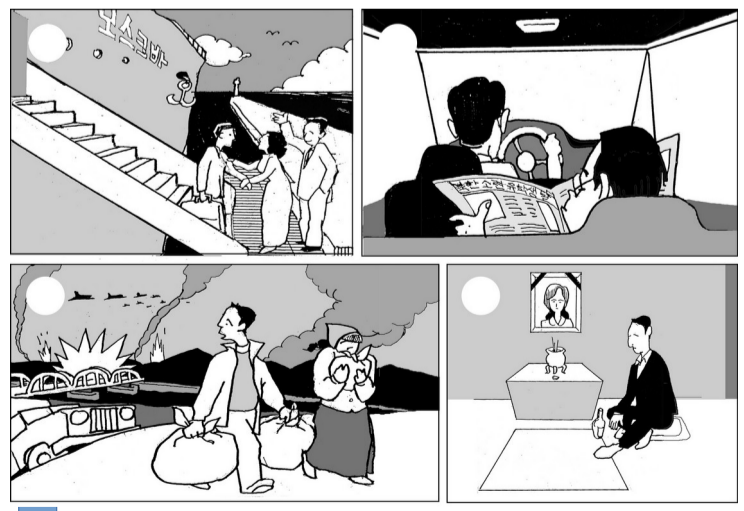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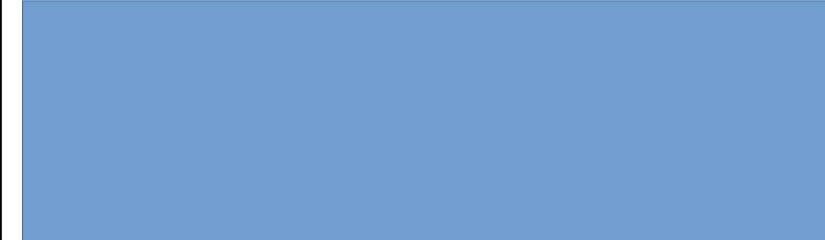
그는 신문을 포개어 되는 대로 말아 쥐었다.

그는 혀를 찹찹 갈겼다.

데……역시 고지식한 놈이 아무래도 모자라…….'

그는 자동차에서 내리자 건가래침을 내뿜었다.

스텐코프의 목소리가 고막에 와 부딪는 것만 같았다.
- 전광용, 꺼삐딕 리 -



언어영역



에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답청
 (㉠?)*은 오늘 하고 욱기(??)는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
 하고 저녁에 □조수(??)*하세. 갓 괴여 익은 술을 갈건(←?)
 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화풍(??)
 이 건듯 불어 녹수((e?))를 건너오니, 향기는 잔에 지고
 꽃잎은 옷에 진다. 술단지가 비었거든 나에게 아뢰어라. 소동
 (?ホ) 아이에게 주막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하야 시냇가에 혼자 안자, 명사
 (??) 좋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로다. □무릉(??)이 가깝도다, 저 피이
 그것인가. 송간(??) 세로(??)에 두견화를 부치 들고, 봉두(?
 ㄱ)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춘만락(???)이
 곳곳에 펼쳐 있네. 연하일휘(????)*는 □금수(??)를 펼쳤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넘쳐나고.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고. 단표누항(???)*에 허튼 생각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 윤선도, 만흥(??) -

- 성혼 -

- 정극인, 상춘곡(???) -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영역

15



언어영역

16

